

한전·한수원 현행대로 분리운영

- 발전 5개사는 시장형 공기업화...
전력사업 발전방안 확정

10년 가까이 계속돼 온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정부안이 확정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4일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화력발전 5개사의 독립 운영 시스템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한전 밑에 속해 있던 화력발전 5개사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또 지경부는 한전과 한수원에 분리돼 있던 원전수출·해외자원개발 업무를 한전 총괄로 통합하며, 전력판매 시장의 경쟁 도입을 위해 단계적으로 전기요금 현실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지경부는 향후 전기 판매시장에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고 가격경쟁을 이끌어내기 위해 현재 원가 이하인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료비연동제(2011년 적용), 전압별요금제(2012년 적용)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폴란드 원자력협력각서 체결

- 원자력 분야의 포괄적 협력 기반 구축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13일 폴란드 바르샤바에 위치한 경제부 청사에서 폴란드 경제부와 원자력협력각서를 체결했다.

원전분야 협력은 지난해 7월 이명박 대통령이 폴란드 방문시 양국 간 주요 의제로 논의된 바 있으며, 이번 협력각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협력각서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건설·운영, 훈련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원자력 분야에 대한 포괄적 협력에 관한 것이다.

이번 폴란드와의 협력각서 체결은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중장기적 협력구축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유럽과의 안전규제요건 차이 등 실질적인 협력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터키에 원전수출 11월께 계약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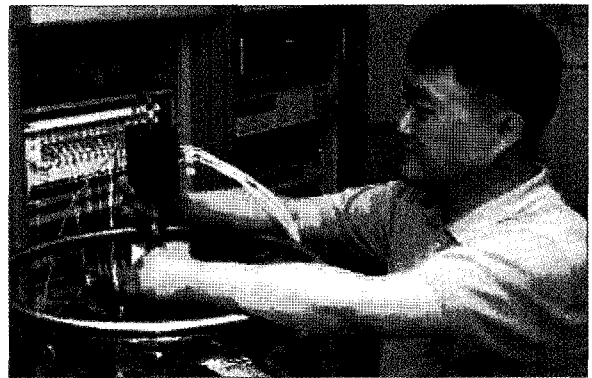
- 터키 개헌·총선 일정으로 G20 정상회의 때 서명 예상

원자력발전소를 터키에 수출하기 위한 정부 간 협약이 11월께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학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15일 퇴임 직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터키 원전 수출은 내년 상반기에 정부 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터키의 개헌과 총선 등 정치 일정이 앞당겨져 올해 중 체결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이어 “새로 뽑힌 총리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여를 위해 방한할 때 계약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간 협약은 터키의 흑해 연안 시노프 지역에 추진 중인 원전 건설에서 한국이 우선권을 갖고 수주 협상을 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게 될 전망이다. 양측은 이미 올 5월부터 전문가 그룹의 협의체를 만들어 실무적인 분야에 대한 협의를 마친 상태다. 원자로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키로 한 것과 동일한 APR1400 모델로 잠정 결정됐다. 가격은 4기를 수출하기로 한 UAE의 절반 수준인 200억 달러 규모가 될 전망이다.

KRISS, 세계 최고수준 국가 교류전압표준 확립



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자력안전연구소)은 전자기센터 김문석 박사팀이 초전도 집합소자인 조셉슨소자를 이용해 1000만분의 1 수준의 정확도를 갖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 교류전압표준을 확립했다.

이번에 개발한 교류전압표준기는 최대 2.2V의 교류전압을 발생·측정할 수 있으며, 가용 주파수 범위는 극저주파에서 수백Hz로 미래 국가 전력표준의 핵심 구성요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 국가표준기관(NIST)의 교류전압표준기에 뒤지지 않는 정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표준기는 기본파뿐만 아니라 혼재하는 미세 신호의 전압과 위상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이번 기술 개발로 교정기관 및 산업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열·전압변환기의 정확한 성능 평가도 가능해졌다.

더불어 전력계, 지진계,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등 대부분의 전기관련 측정 장비에 활용할 수 있어 관련 제품의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표준연은 전망하고 있다.

연구팀은 앞으로 교류전압표준기의 측정 범위를 10V, 수KHz 수준까지 확장시키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은 마이스터 고등학교인 수도 전기공고의 기술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업현장에 적용할 전기·기계분야 기초실무 과정을 이수했다.

또한, UAE 원전의 참조발전소인 신고리 3,4호기 건설현장, 원전기자재 제작사인 두산중공업·효성중공업 등 산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실습도 병행했다.

UAE 학생, 수도공고 실습 수료식



UAE 과학기술고와 과학기술대 학생 48명이 수도 전기공고에서 한달 동안 실습교육을 성공리에 마치고 지난달 7일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UAE 학생들의 국내 교육과정은 UAE의 한국형 원전 건설·운영계획에 따라 원전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앞으로도 매년 50여명 규모로 추진될 계획이다.

정부, 녹색인증기업 혜택 늘린다

정부가 녹색인증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확대기로 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금융권의 녹색금융상품 개발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1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2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지정부는 기업들의 녹색인증 참여를 활성화하고, 녹색인증 투자대상의 조기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융자 지원 확대 ▲판로·마케팅 지원 강화 ▲기술사업화 기반 조성 ▲사업화 촉진시스템 구축 등 4대 분야 26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